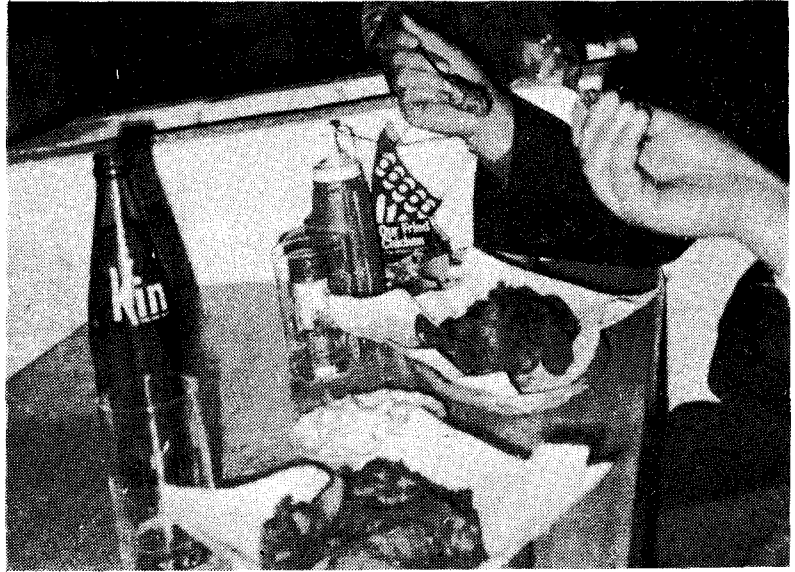


## 외식산업의 번창과 양계산물의 소비



4~5년전 일본에 있어서 외식산업(外食産業)이 크게 번창하고 있음을 국내 일간지들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일본에서의 캔터키 후라이드 치킨이나 맥도날드 햄버거 등 합작회사들의 성공을 일본의 신문들이「일본 캔터키 후라이드 치킨(주)은 어떻게 해서 재벌이 되었나?」하는 흥미 진진한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음을 보았다.

일본의 경우 미쓰미시같은 일본 최대 재벌이 일본 캔터기에 투자하는 것만 보아도 가히 하나의 성장산업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이런 보도에 자극되었음인지 국내 유수 재벌 회사들이 외식산업에 참여하려고 기획하였다가 보사부의 반대로 좌절된바 있었다.

본지에서는 닭고기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2년전부터 캔터키 후라이드 치킨등 화스트 후드산업에 대한 소개를 수차례 걸쳐 한 바 있다.

최근 서울시내에 보면 골목에까지 캔터키 후라이드 치킨 간판이 걸려있고 심지어 구멍

가게에 까지도 닭고기를 팔게 되었다.

닭고기를 주로한 대중 소비에 대해서 KIST 이유헌 박사, 오진양행 정진국 사장, 한협상사 박준영 사장 등이 초창기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었다.

들리는 말로는 서울시내만도 약 1,200여곳의 튀김 닭고기 판매점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 와서 닭고기 외에도 음식백화점, 스낵코너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찻집에서도 라면이나 기타 토스트등 간단한 요거거리를 팔기도 한다고 한다.

경기침체때 휴폐업이 늘던 일반 대중음식점이 음식백화점이나 간이음식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76년 1만 7천여개에서 80년말에는 3만 2천개로 증가 되었고 여기에 작년말 양성화해준 무허가 간이음식점 1만 8천여개소를 합하면 5만여개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선 먹는 장사가 가장 안전하고 현금 회전이 빠르며 일반 경기 침체로 마땅한 투자 대

상도 없고 또 샐러리맨들 사이에 도시락이 없어지고 대부분 구내식당도 없어, 점심때면 무엇을 먹을까 망서려 지는것이 사실이다.

저녁도 늦게 까지 야근을 하든가 친구 또는 사업 관계로 대부분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 생활이 윤택해 짐에 따라,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맛벌이 부부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외식을 즐기게 된다.

요즈음 캔터키 치킨이 생긴 후에는 여학생을 비롯한 국민학생에 까지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어 외식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여 주고 있다.

더욱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곧 음식점이 현 재는 허가업종이나 이것이 신고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데 신고제로 될 경우 외식산업을 번창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이렇게 번창일로에 있는 외식산업을 보며 또 외국의유명 외식기업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몇가지 우리가 생각 할 것은 닭고기나 계란이 외식산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외식산업은 조리가 위생적으로 간편 하여야 하며 국민 보건을 위해서 영양이 풍부해야하며 값이 싸고 맛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제반 요건을 갖춘 것이 닭고기이기 때문에 닭고기의 소비는 더욱 장려되어야 하겠다.

우리 양계인은 이렇게 번창일로에 있는 외식 인구를 의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한 소비 홍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되겠다.

이들 외식 인구가 식성을 닭고기로 돌릴경우 이제 부터 양계산업과 사료 약품 기계와 기구등 관련 산업까지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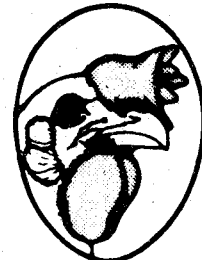
불량 후라이드 치킨의 추방과 올바른 소비자 홍보가 시급하다.

# 광 주 부 화 장



# 바 브 콕

## B-300V



## DEKALB 와렌 G



# 하 바 드

사무실  
전남 광주시 서구 양림동 8-15번지  
전화 ⑧ 1107